

2021.04.01

기후변화청년단체 GEYK, 양예빈

서울시 기후정책 미래 비전 제시

기후렌즈를 통해 바라본 서울



1.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



미세먼지 발생 원인

- 이상기후와 생태파괴가 지금의 대기오염, 미세먼지와 관련됨
-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정체는 고농도 미세먼지 심화 유발



일상이 된 미세먼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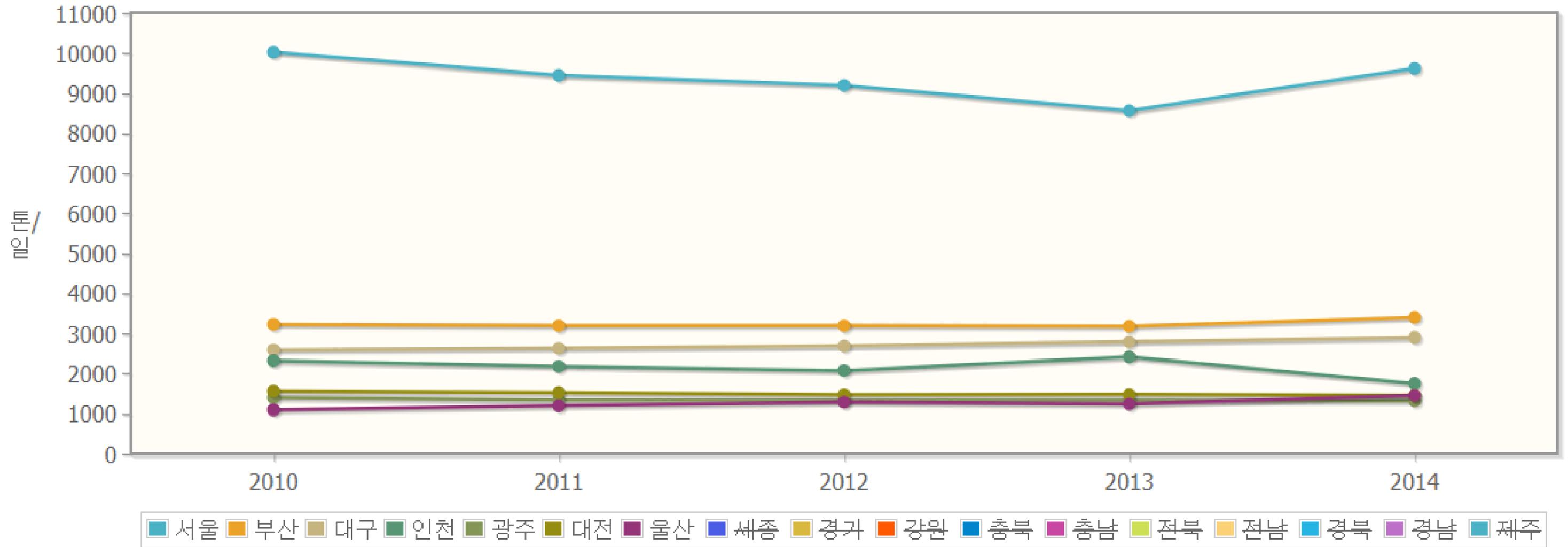
- 편히 숨쉴 수 없는, 숨 막히는 일상의 연속을 의미
- 2015년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중 3위가 내연기관차, 미세먼지 없는 서울을 원한다면 내연기관차를 줄일 공약과 기후공약 필요

2. 쓰레기 대란 예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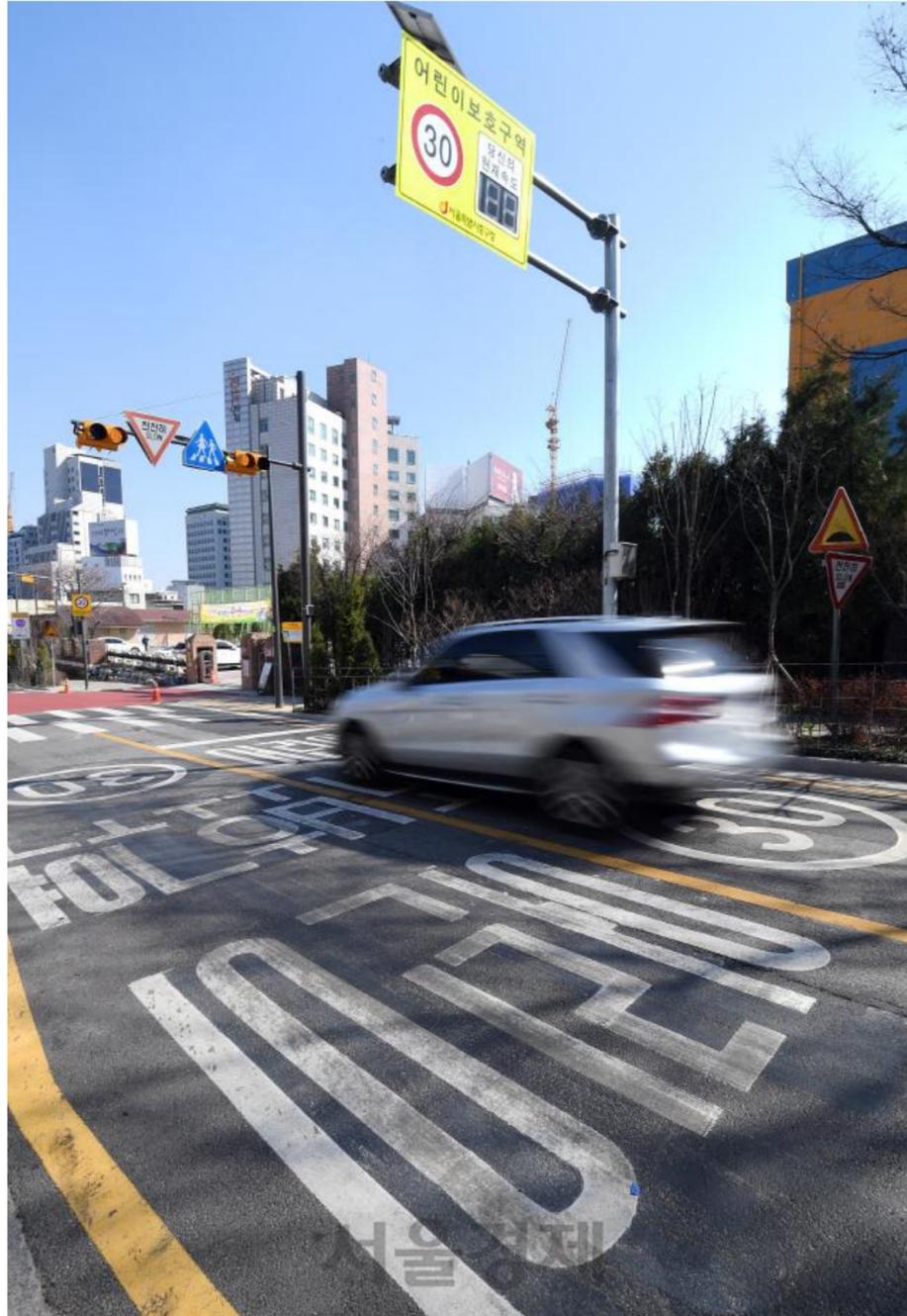
매년 반복되는 쓰레기 문제

- 쓰레기 문제는 현재 진행형
- 서울은 쓰레기 발생량 전국 1위, 폐기물 처리 자립도 전국 최하위
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'2025년 사용 중단'을 선언하며, 시급히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
- 서울시민이 매년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을 걱정하지 않고, 더 나아가 기후·생태위기를 가속화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일 방안, 폐기물 처리 자립도를 상향할 계획 필요



1인당 시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(지정폐기물 제외), 환경부 환경통계포털

3. 스쿨존에서 또 사고 발생 (feat. 자동차 중심 도시)



자동차 중심 도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
- 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으며 속도 제한도 생겼지만, 관리규제 사각지대 존재
- 법이 만들어져도 여전히 모든 게 자동차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
- 시민 안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측면에서도 서울은 더 이상 자동차 중심 도시가 아닌 보행자·자전거(그 외 친환경 교통수단) 친화 도시로 나아가야함
- 수송 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원 2위 차지
- 서울시민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원한다면 보행·자전거 친화 도시로의 전환을 포함한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약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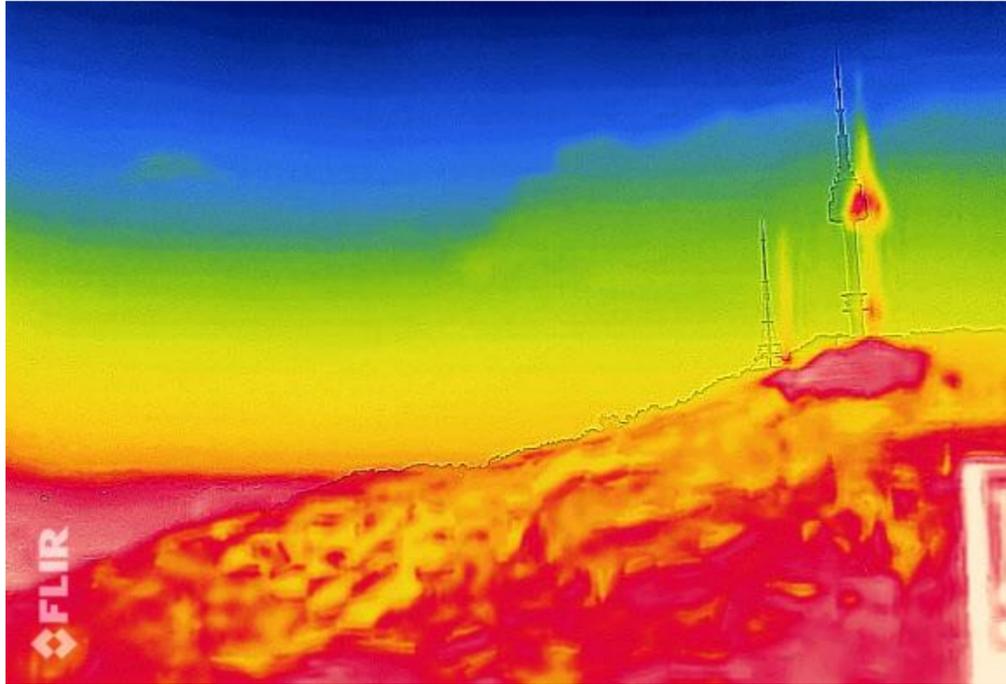


보행자·자전거 친화 도시



자동차 중심 도시

4. 폭염의 장기화



더 강력해지고 잦아지는 이상기후

- 역대급 폭염, 한파 등 극한 기후는 더 이상 몇 년에 한 번 찾아오는 현상이 아님
- '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2020(기상청)'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더라도,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이번 세기 후반, 3도 오른다고 밝힘
- 서울시민을 이상기후로부터 보호하고, 기후변화 전망을 최선의 시나리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후공약과 더불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·토건 사업, 자동차 공간 확대(ex. 주차장) 등 공약의 전면 재검토 필요

우리가 바라는 서울

당연하다 여겨온 것들이 절실해지지 않는 서울
생태한계 안에서 **모든 시민들의 권리**가 지켜지는 서울
인간, 비인간동물, 자연이 **공존**하는 서울
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**일상**을 살아갈 수 있는 서울

서울과 글로벌도시 비교

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

2021. 1.

서울특별시
[기후환경본부]

공공건물 ZEB 선도적 시행

○ (공공건물) 연면적 5백㎡~1천㎡ 건물, 정부 계획보다 4년 앞당겨 ZEB 의무화

기준	정부 ZEB 로드맵	서울시 ZEB 계획
연면적 1천㎡ 이상	'20년	'20년
연면적 5백㎡ 이상	'25년	'21년

- 1천㎡ 이상 : '20년~ ZEB 5등급, '30년~ ZEB 4등급, '50년~ ZEB 3등급

- 5백㎡ 이상 : '21년~ ZEB 5등급, '30년~ ZEB 4등급, '50년~ ZEB 3등급

건물 부문 서울시 계획

- '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'에서 노후, 신축, 공공, 민간건물 대상 그린리모델링,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등 계획을 밝힘
-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하고 지지할 사람, 예산, 법적 기반 필요

서울시장 후보 공약

- 대규모 개발사업, 토건 공약으로 가득
- 규제 완화, 주택 공급 확대 등 공약 안에 온실가스 배출 총량 규제 등을 언급한 후보 부재
- 서울에서 건물은 온실가스 배출원 1위 임에도 대규모 개발 사업 시 기후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지 부재를 드러냄

서울과 글로벌도시 비교



글로벌 도시 사례: 뉴욕시

- 뉴욕시장, 도시 핵심 도전과제를 기후변화와 불평등으로 정의
- 시민 참여 및 지역협력 기반으로 뉴욕시 그린뉴딜 장기 전략 계획인 OneNYC 2050 마련
- 2009년 녹색성장건축계획법, 2019년 기후활성화법 통과
- 뉴욕시 사례는 도시 방향과 핵심가치 설정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보여줌
- 성장과 욕망이 가득한 공약에서는 기후위기 해결 의지도, 불평등 해소라는 비전 모두 부재

OneNYC
2050



서울과 글로벌도시 비교

기후위기 대응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**안 하는 것**

응답하라 1980이 벌어지고 있는 선거판

기후공약 없이 글로벌 서울, 도시경쟁력 세계 1위 목표?

마무리 발언

1년 임기 서울시장 선거,

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은 **후퇴할 시간이 없습니다.**